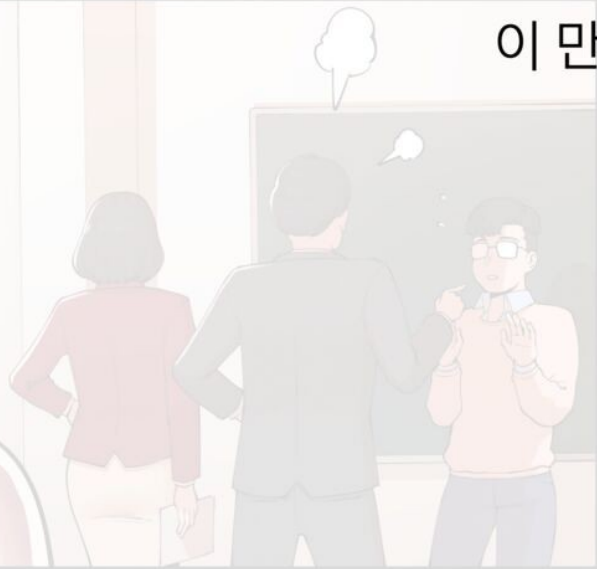




이 만화의 내용은 허구입니다.



학교 폭력 여부가
대학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 제정됐다.



학폭 이력이 남으면
상위권 대학에는 입학이
원천적으로 불가.

웬만한 대학은
입학 원서조차
올리기 힘들어진다.

법 시행으로
도마에 오른 이들은
뒤늦게 사과 및 용서를
구했으나, 합의는 없고...

이후로 학부모가
선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했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가해자의 미래가
달라지는 없었다.

고졸로 학업을
마무리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
졸업장은 따라하기에,
억지로 꼴통 대학이라도
다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밑바닥을 긁어 모은
학교가 좋게
돌아갈 리는 없는데..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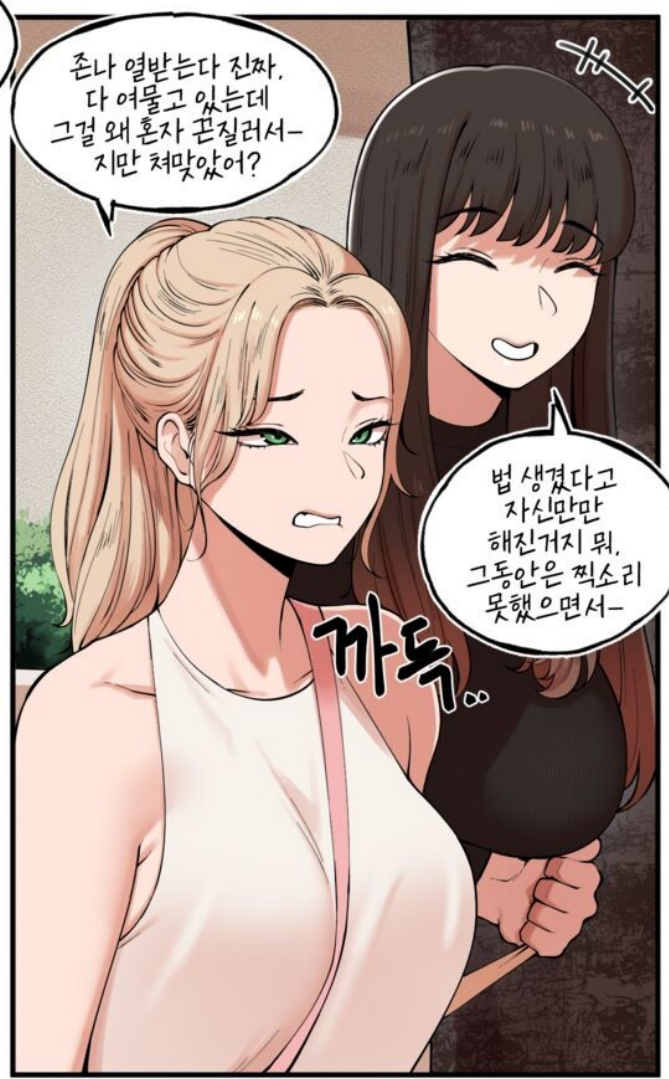


하아.. 결국 이판 데를 오고야 마네.

끝에 대학이라고 꾸며놓은 거 보라.

어쩔수 없지. 받아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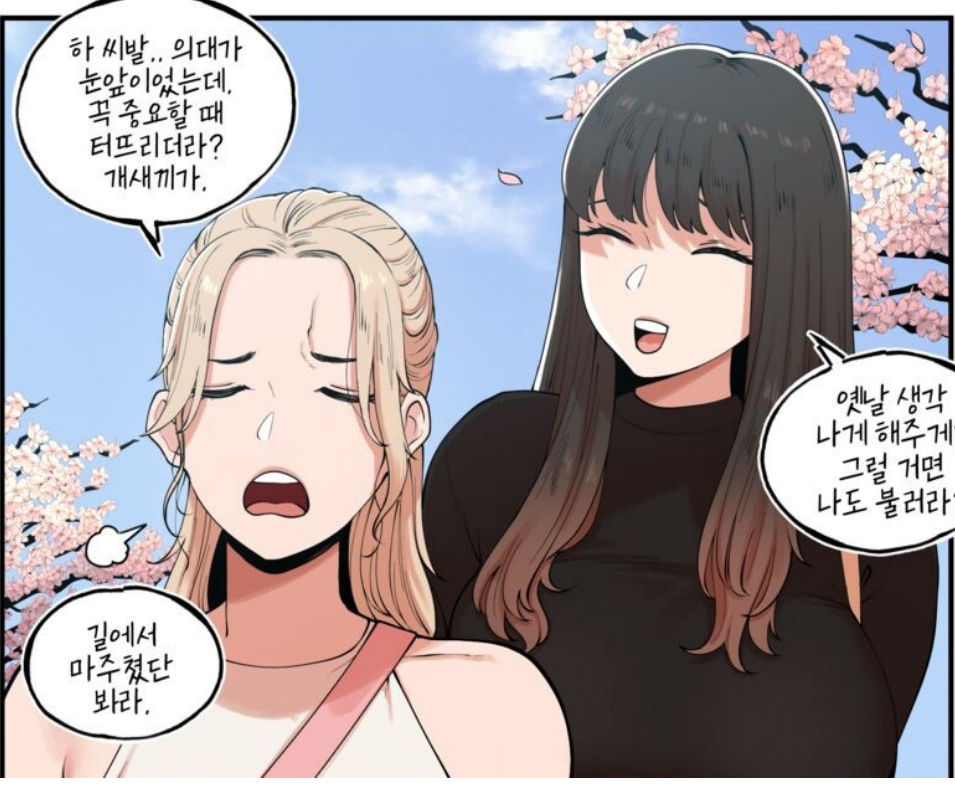
그냥 적당히 놀다가 졸업장만 타가지구.



존나 열반는다 진짜. 다 여물고 있는데 그걸 왜 혼자 끈질리서-지만 쳐맛았어?

범생겼다고 자신만만 해진거지 뭐. 그동안은 짝소리 못했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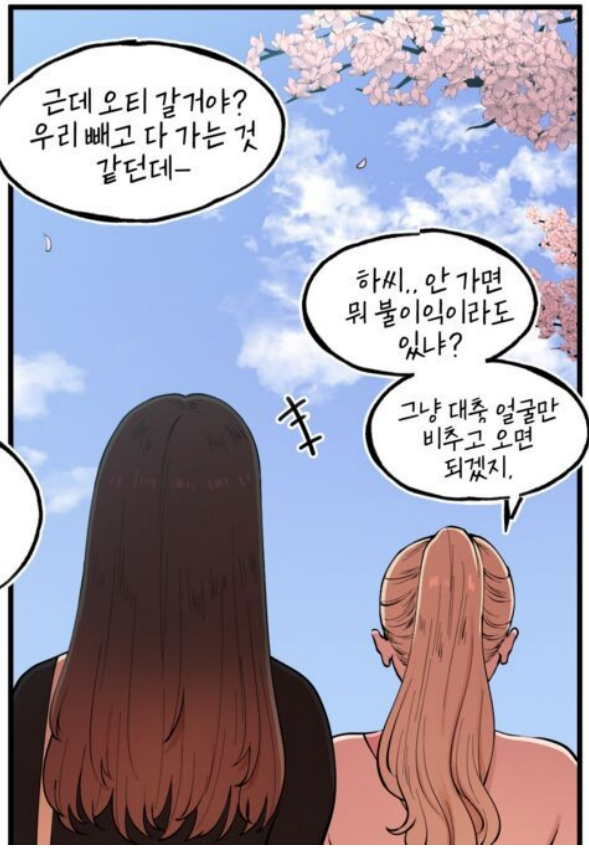
가득



하 씨발.. 의대가 눈앞이었는데, 꼭 중요할 때 터뜨리더라? 개새끼가.

길에서 마주쳤단 보라.

옛날 생각 나게 해주게? 그럴 거면 나도 불러라?



근데 오티 갈거야? 우리 빼고 다 가는 것 같던데-

하씨.. 안 가면 뭐 불이익이라도 있냐?

그냥 대충 얼굴만 비추고 오면 되겠지.



당신의 컷가에
속삭이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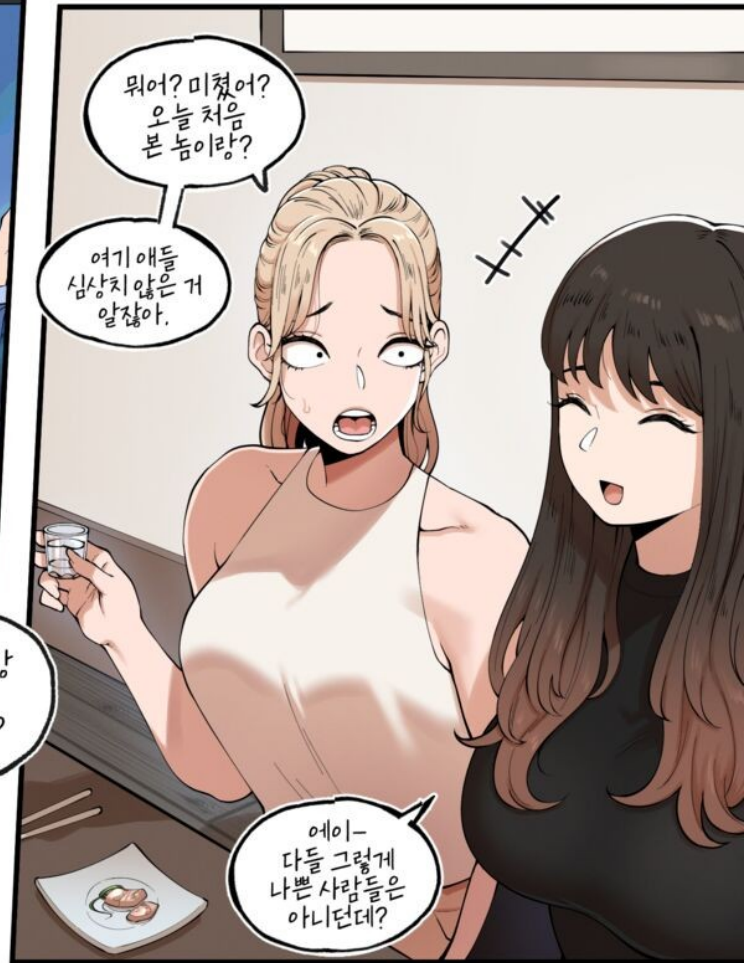
속삭여줘
속삭여줘~

당신의
에
속삭이

가아-

나저 오빠랑
할 건데,
같이 할래?

짜짜



뭐어? 미쳤어?
오늘 처음
본 놈이랑?

여기 애들
심상치 않은 거
알잖아.

에이-
다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던데?



게다가
학생회장이라,
저 오빠.

미리 꼬드겨두면
좀 편하지 않겠어?

까-

벌써부터
눈치챈 애들
들러붙는 거 봐.

좀 들어보니까
집도 잘 산다더라.
학생회장이 그렇게 많이
빼먹을 수 있다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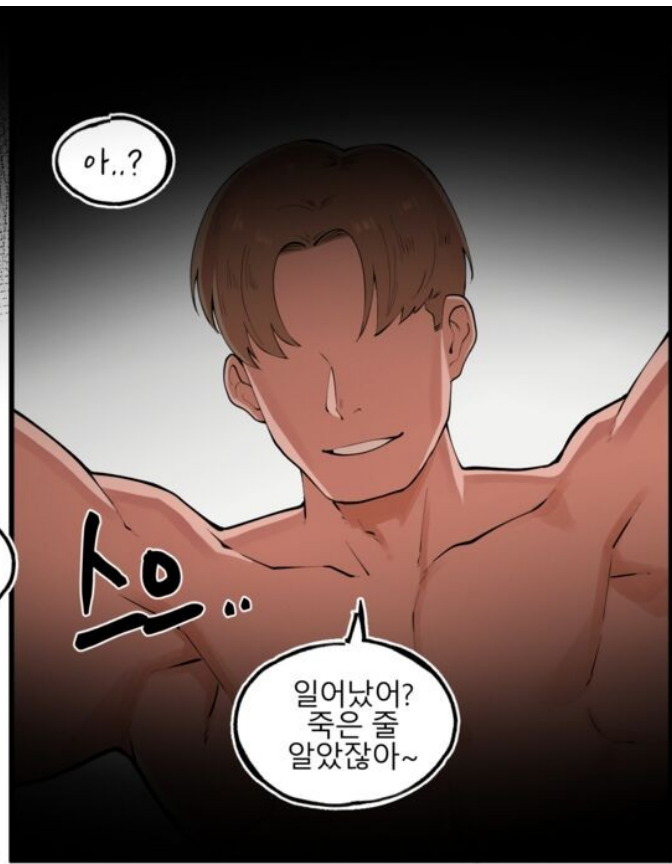
아- 몰라.
난 이거 먹고 갈 거야.
알아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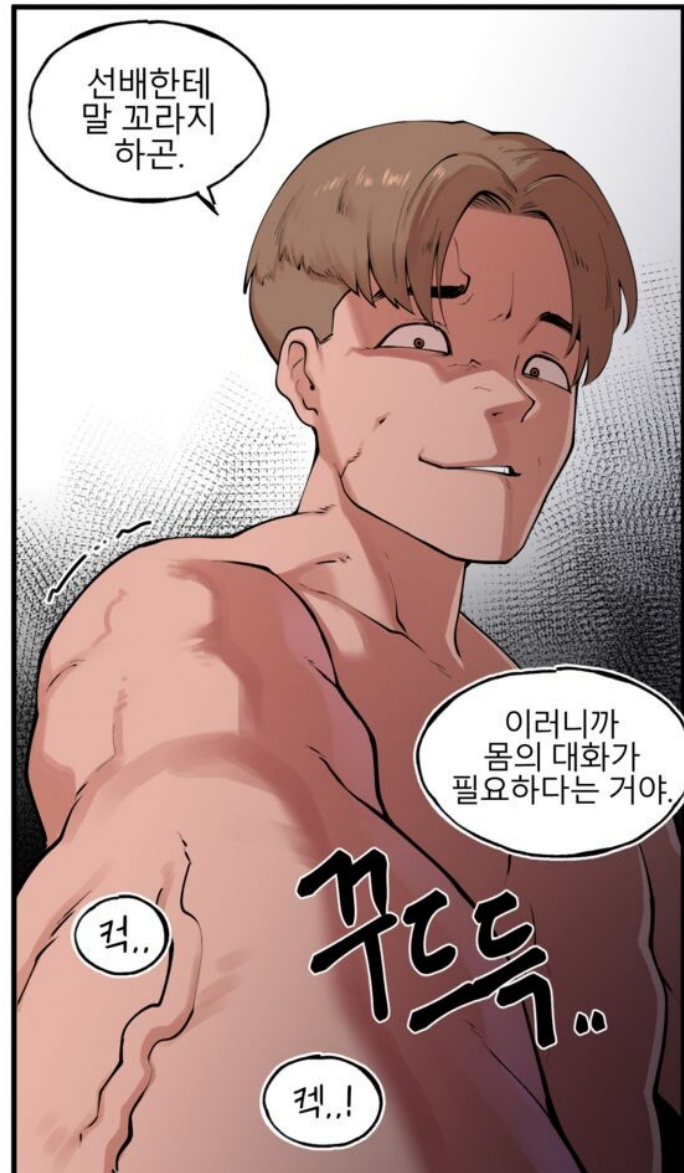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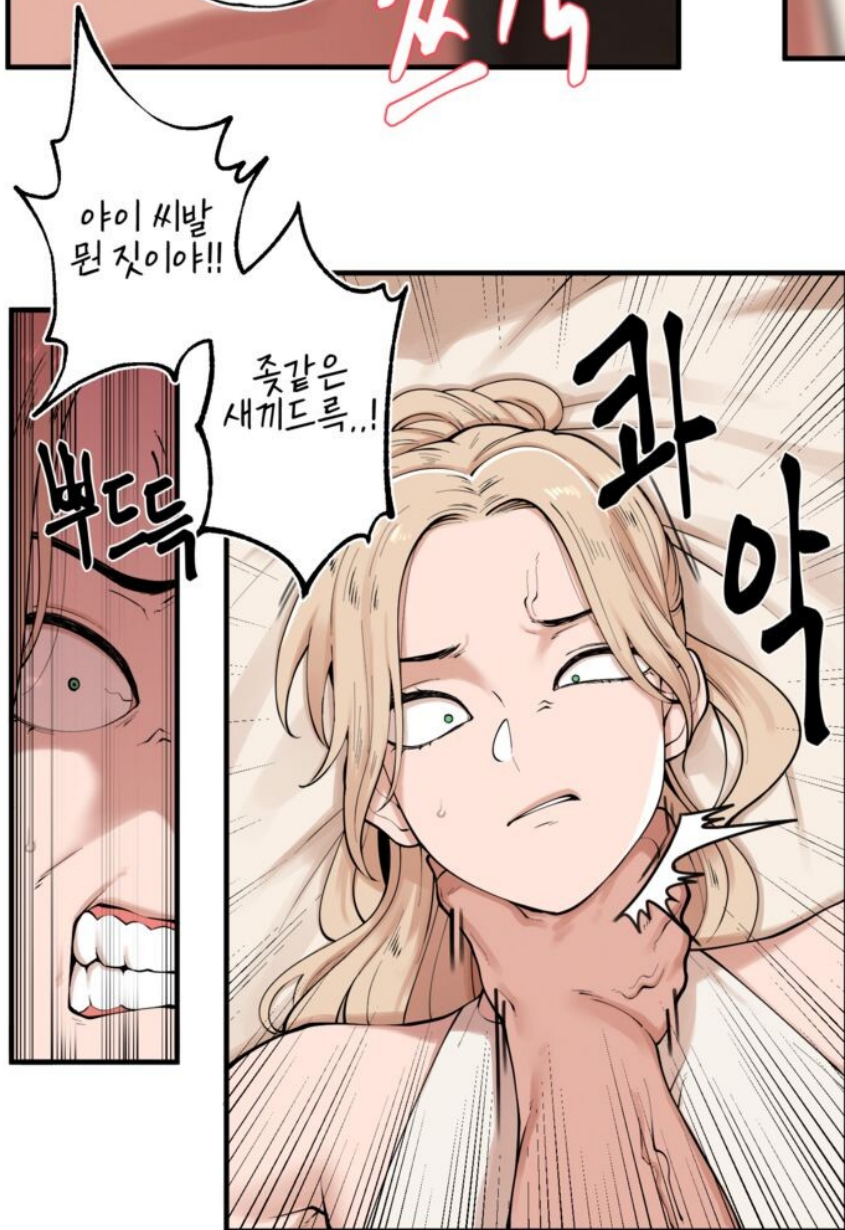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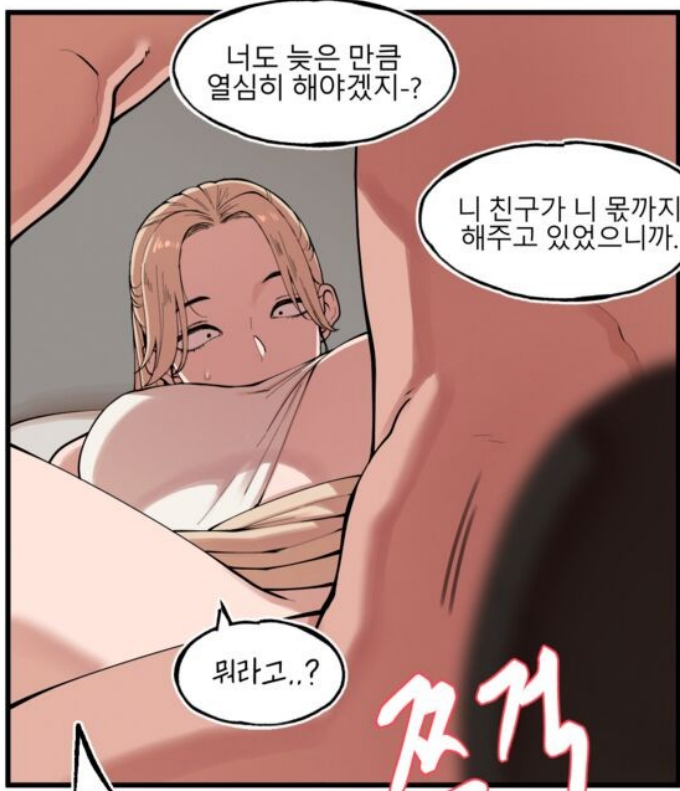
홀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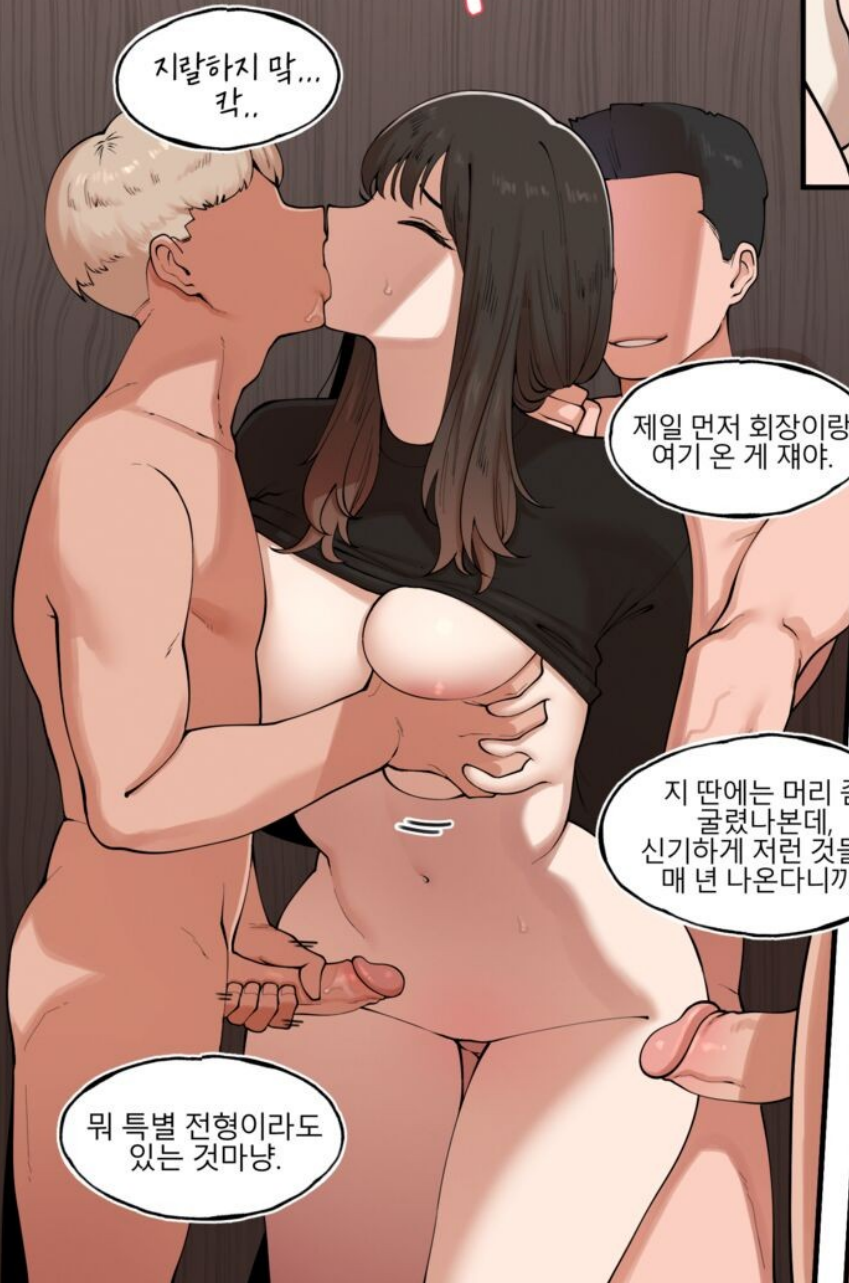
흠-
나중에 소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
내가 먼저 먹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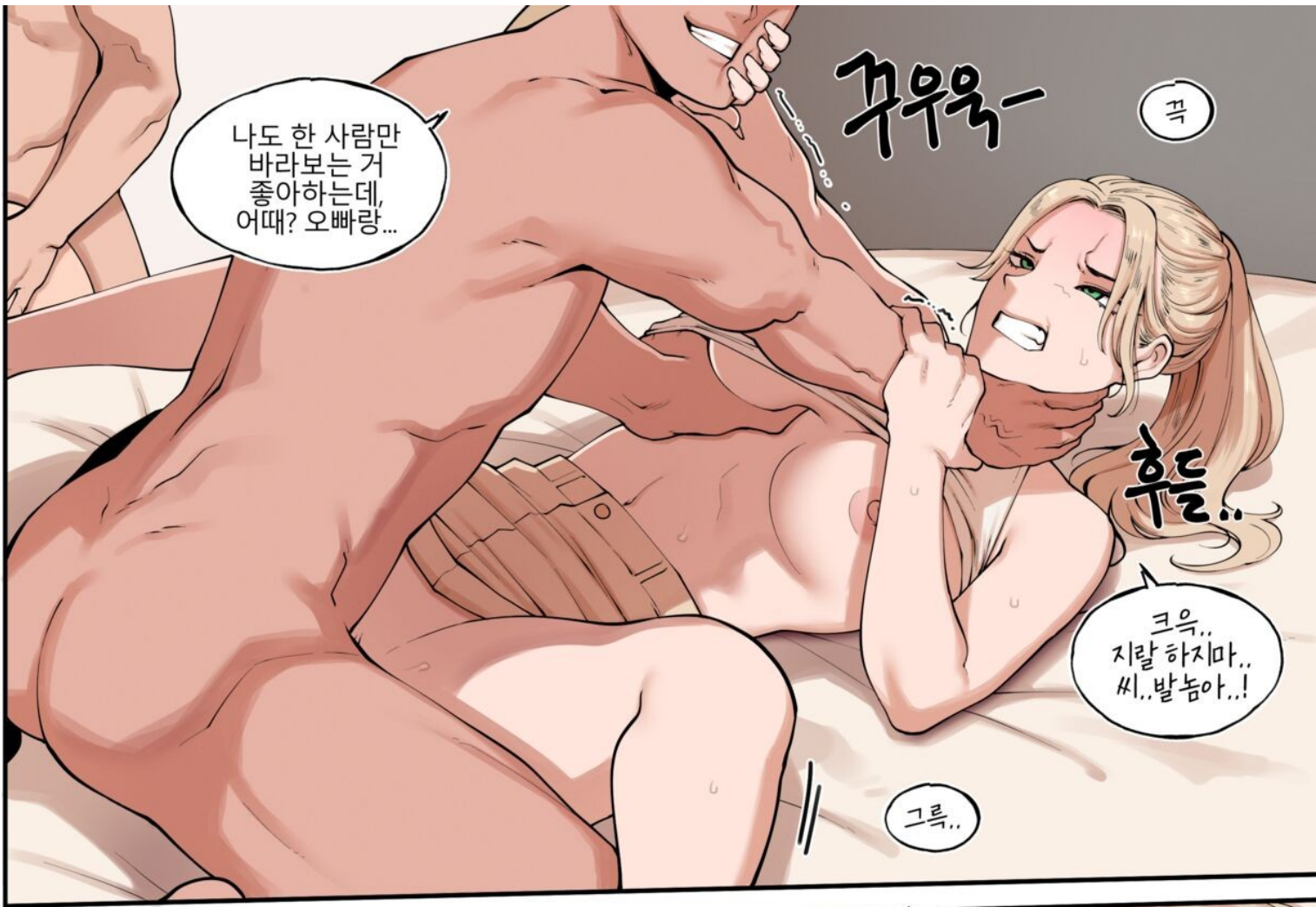
아 개져.











나도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
좋아하는데,
어때? 오빠랑...

꾸우욱-

크

후들..

크익..
지랄하지만..
씨..발놈아..!

그럭..



조용히 좀 해라~
암만 지랄해도
너 도와줄 사람
없어-

하아

꽂악-

하아..

죽까
미친
새끼야!



개같은
씹새끼!
죽일
거야..

죽일
거야아
-!!

아 거 참.
자꾸 그렇게
고성방가 하면-



씨비...
컨
퍼억



존나 시끄럽네 십년이.

하아..

아 놀래라. 말 좀 하고 들어와 새까~

허억..

쿨럭

꼴에 일진 놀이 좀 했다고 목에 힘 주고 다니나 본데.

허억...?!



여긴 그딴 거 없어. 다 똥통에서 구르다 온 놈들이라.

괴아악..

후우

새악..

죽같이 굴면 바로 쳐맞는 거야.

후우..

야- 근데 배뺑 치니까 존나 쪼인다 야. 바로 쌀 뻘했잖어.

컨...



너 살면서 이렇게 맞아본 적 없지? 갑죽대는 게 딱 그거더라고.

허억..

쿨럭

허억..

이제 좀 조용해지네. 하여튼 존나 약손이라니까.



됐고, 나도 해도 되냐?

스익

좋지. 마침 시끄러웠는데, 입에 뭐라도 물려줘.

하아.. 아윽.. 안.. 두읍..

췌뽕



쭈뼌 쭈뼌

허억 허억.. 아- 좇되네 씨발. 이 년이 제일 맛있네. 운동 했다고?

애 친구 말 들어보니까 의대도 지원 했다더라. 그냥 꼴통은 아님.

쭈뼌

쭈뼌

야아- 인재네 인재. 여의사 남께서 이런 놈들도 몸으로 치료하러 와주시고.



입보지도 존나 찌는데!! 아주 명기가 들어왔어-

꽂아악

몸매 뒤진다 진짜. 키도 줄라 크고 젖탱이도 진심 좇되는데?

요즘 애들 발육 뭐냐고-

쭈뼌

리얼루다가. 여태 주물러본 가슴 중 1티어임.

쭈뼌



개같은 새끼들... 짐승처럼 박아대기는..

꽂아

이게 옳게 된 학교지 씨발.

쭈뼌

쭈뼌

꽂아



매년 이런 끌리는 년들이 알아서 몸 바치러 온다고-

숨 쉬기 힘들어.. 아무 생각도 못하겠어..

쭈뼌



하아..

하아... 죽까..
쓰레기 같은
놈들아..

크
글
록

니들은.. 콜록

반드시
신고한다내가.

하아



다, 다혜야..

씹ㅋㅋ 니 친구는
진짜 레전드다 야.



네 대답
잘 들었구요~

웃?!



신고식
해줘야지-

신고 하니까
생각 났다 야.

파악

뭐, 뭐야!?

이런 년은 역시
뒷구멍이 약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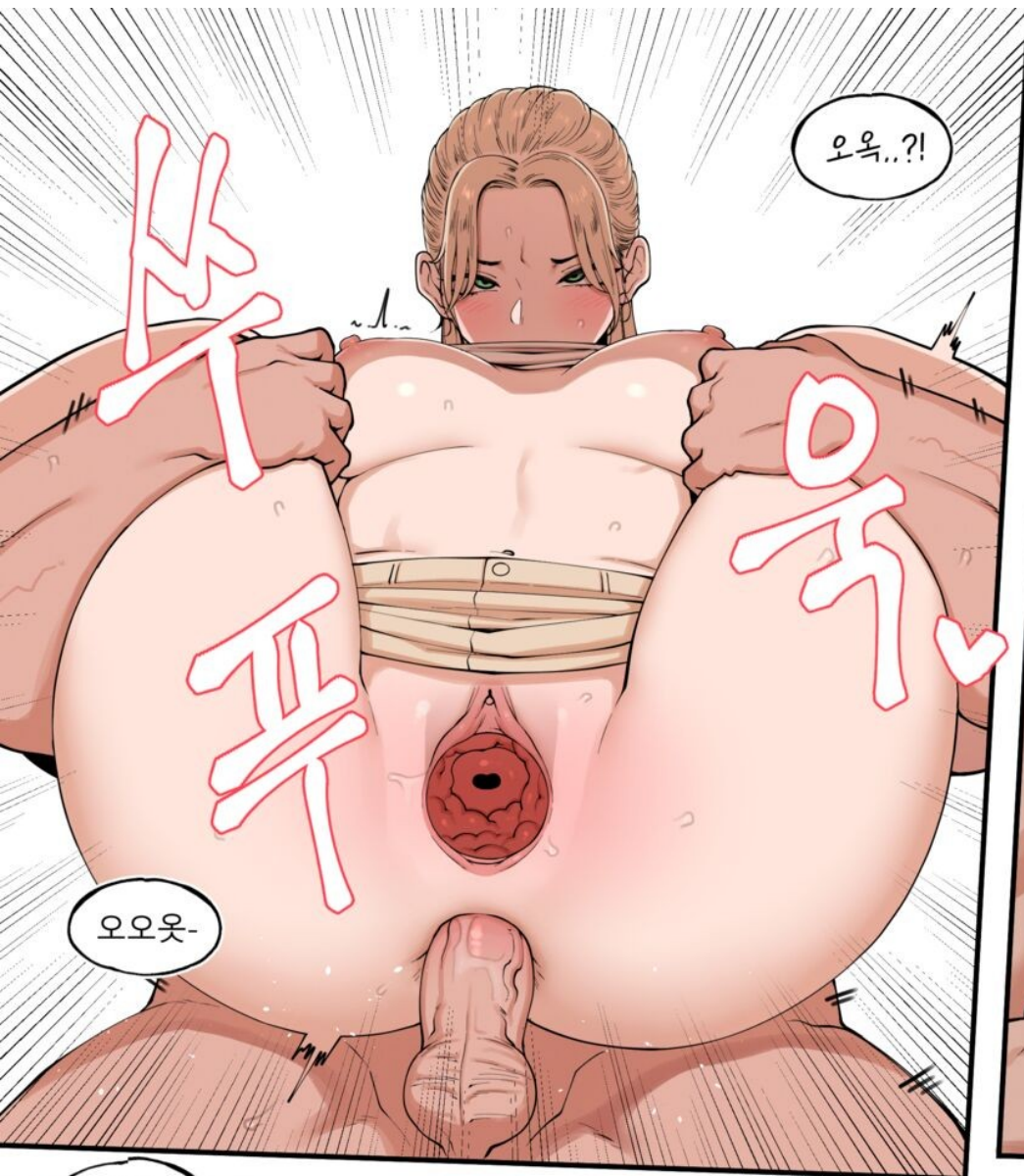
앞뒤로 조져줄게.
건방진 후배님-

자자, 잠깐,
거기는..!

꺾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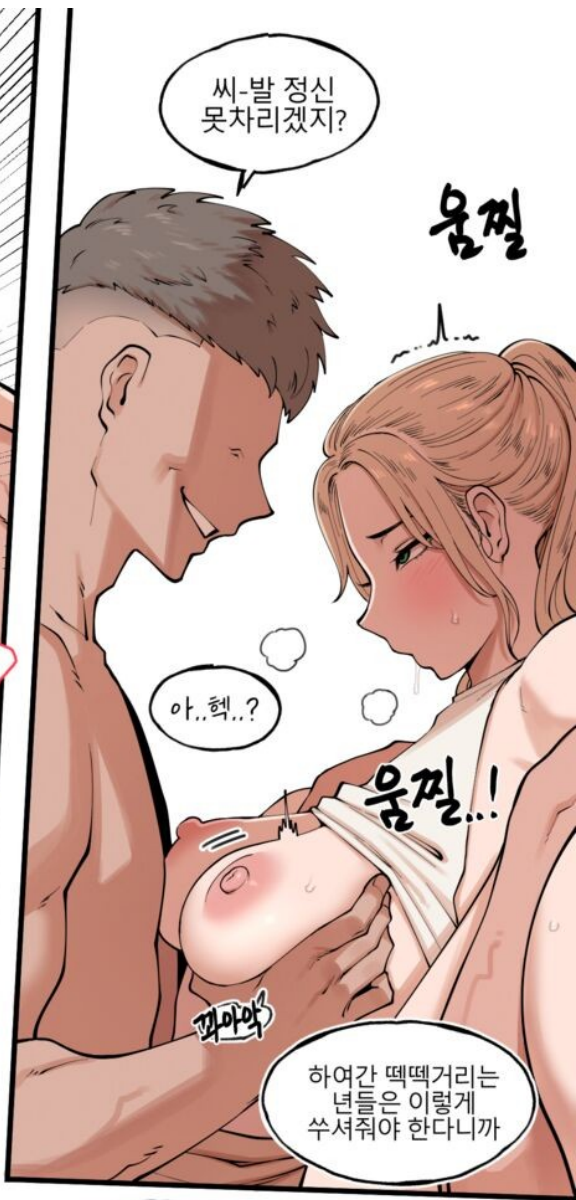
꺾음

야- 시발
벌써부터
쪼이네.



오옥..?!

오오옷-



씨-발 정신 못차리겠지?

응짚

아..헉..?

응짚..!

하어간 뚱뚱거리는 년들은 이렇게 수서줘야 한다니까



좀 더 깊게 넣어봐. 뒤에도 존나 쪼인다야.

찌깅

아.. 시..러어..

우으.. 다혜야...

스윽



잘 봤지? 이제 후배님 차례야-

히..

러

긴장 풀어. 우리 매너 있게 해 줄 테니까-



허억 허억..
쫘찌네 시발..!!

키 큰 년이랑 하는 게
얼마만이나 이게-

쫘욱

구혹

쫘복

허억

구뽐

쫘욱

팡

헉

후욱- 존나 맛있어
이 년 보지-!!

쫘죽

헉

쫘뽐

쫘퐁

팡

이런 우월한 암컷한테
마음껏 박을 수 있다는 게
개꿀린다고-!!

후퐁

저번에 배구 하던
애도 맛있었는데,
이번엔 살집도
적당히 있어서
떡감이 더 좋네-

쫘퐁

헉

쫘뽐

허억

프스

쫘퐁

싫어어..
냄새 나는 자지..
어지러워..



쭈뼌

후욱..
입보지..
입보지..!!

근데 뒤쪽도
자주 썼었나보네?
어떻게 굴러먹던
년이냐고-

쭈뼌

숨막혀..
질식할 것 같아..

쭈뼌

빨둥부터가 벌써
엄마 될 준비
다 됐는데 뭘-

쭈뼌

쭈뼌

후욱..
젖탱이...!!

신고식으로
친구랑 사이 좋게
똥구멍 뚫어버리기~

쭈뼌

쭈뼌

미친놈들ㅋㅋ

열등 유전자
잔뜩 교배시켜줄게-
으랏으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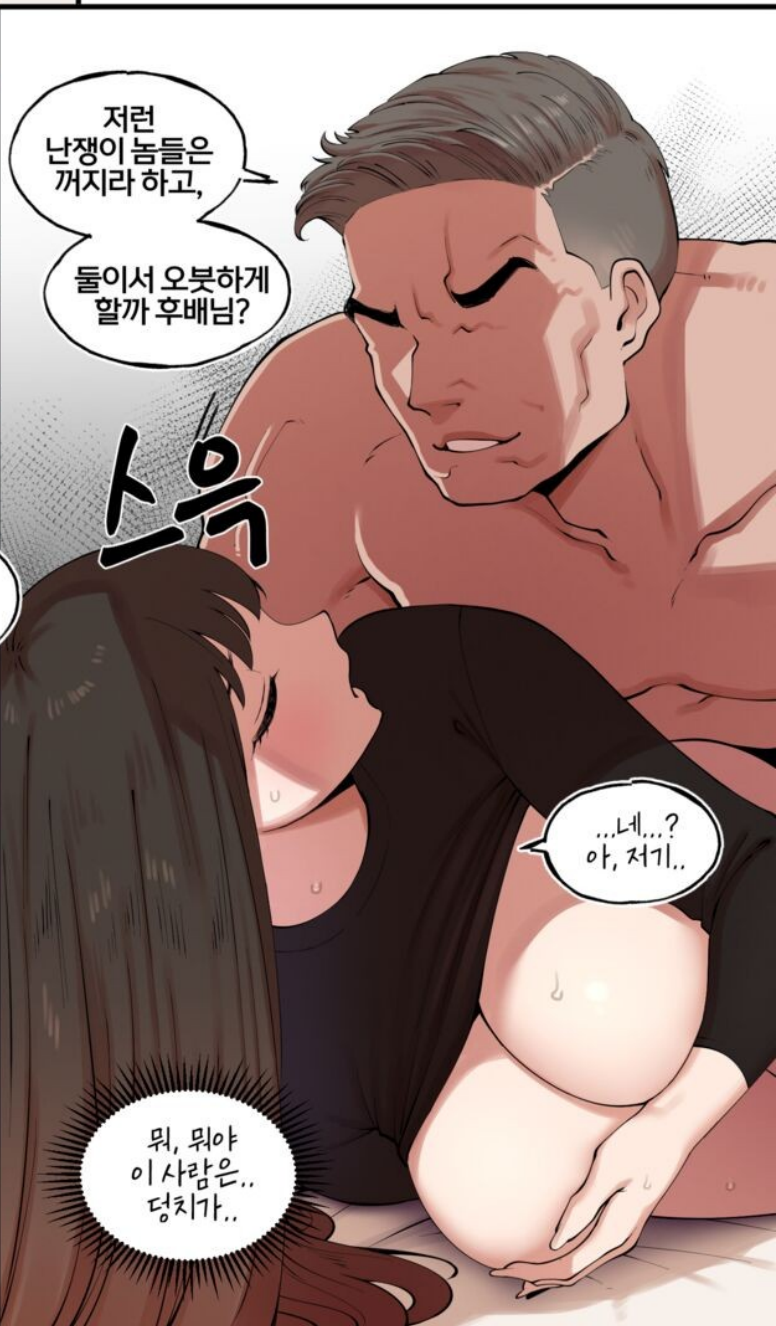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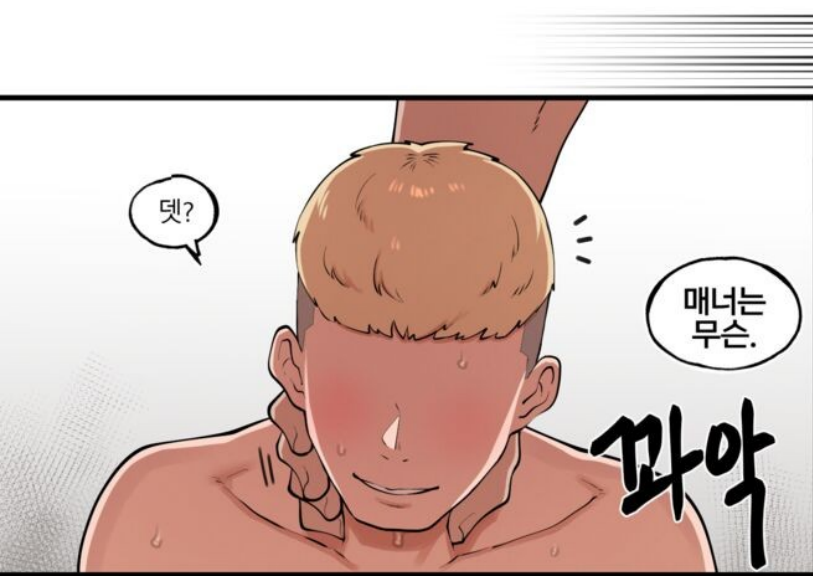
쭈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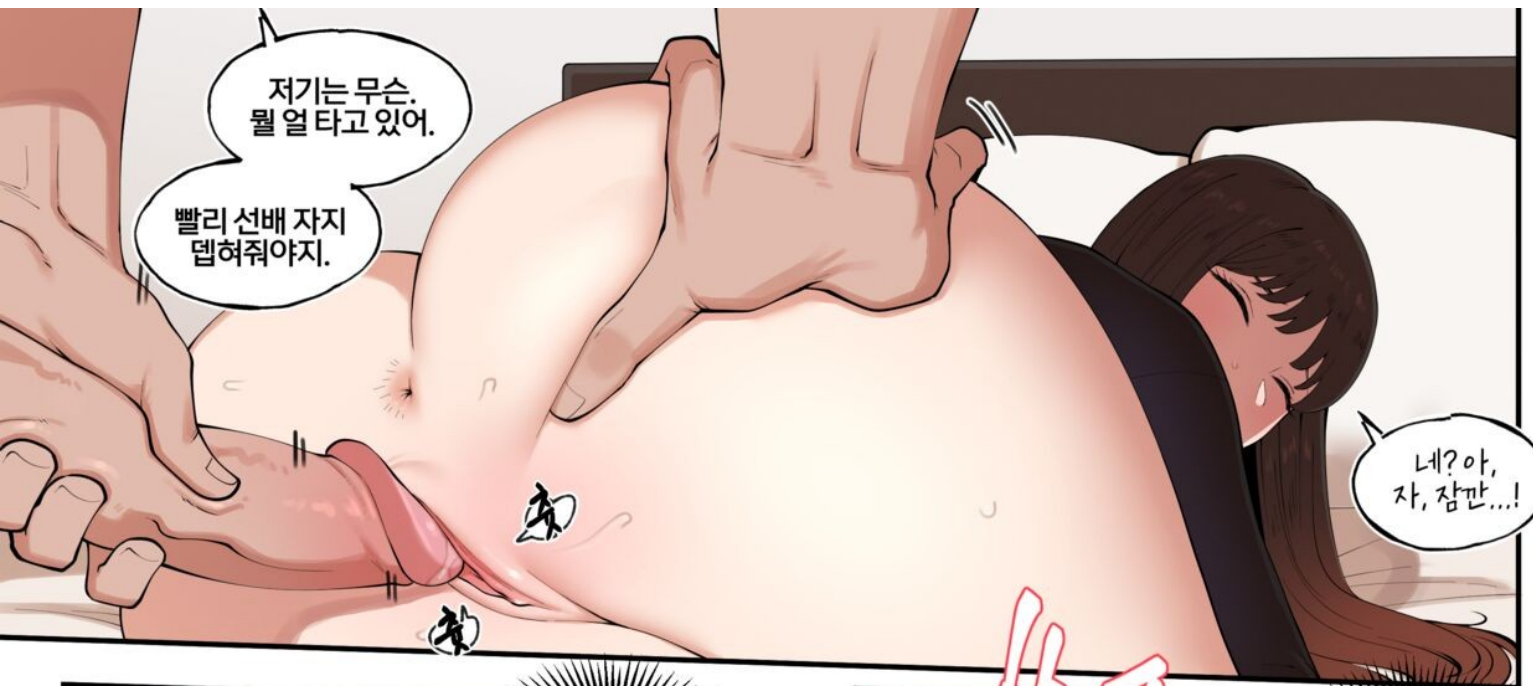
성인 되자마자
바로 엄마로
만들어줄게..!!

응흐음..!!

쭈뼌

그만..
싫..어어..





저기는 무슨, 뭘 열 타고 있어.

빨리 선배 자지 댁혀줘야지.

네? 아, 자, 잠깐...!



아니, 무슨 크기가..



저런 게 들어오면.. 아, 들어온...

하악..?!



어때? 저런 실종 놈들이랑은 비교가 안되지?

금방 내 전용 보지로 만들어 줄게~

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뭐야 이거.. 궤똥리는 것 같아..! 들어올 때마다 배가...

하아.. 아아..

아.. 하악..



대단하네, 우리 후배님. 이 자지 넣으면 반은 졸도하던데.

하아..

말도 안 돼..

쭈뼌!



앞에 놈들이 잘 풀어놓은 건가? 저런 놈들도 쓸모가 있긴 하네.

이 정도로 커다란 게 들어와서 아플 줄 알았는데... 어째서...

흠...

으...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좋은 거다 아니까.

물도 존나게 나오는구만.

하아.. 자지 들락이는 거, 직접 보니까 더 흥분 되지?

하아.. 아, 아니.. 그런 게..

아

하아

으.. 아, 아니야아.. 아..

아



꾸욱

슬슬 스퍼트
가볼까-

아..?



자아,
여기를 이렇게
꾸욱 누르면서-

배
부드득...

안 돼..
아까보다
더 깊게...

꾸욱

끝까지 비집고
들어와서.. 언 ♥

응?



선배를 기쁘게 해주는
기특한 후배님에게는
상을 줘야겠지-

아아.. 잠깐..
이, 이 자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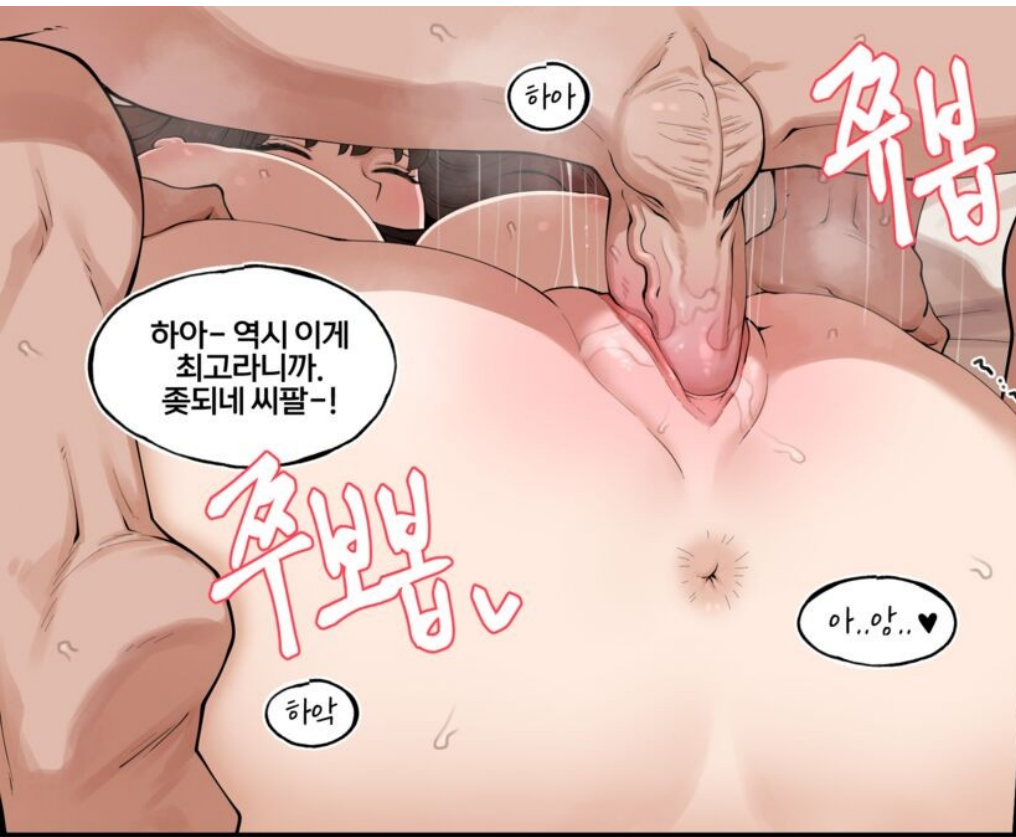
하아

꽂아악..

왜, 부끄러워?
곧 좋아질거야~

뭐, 뭐야 이거..
아까랑 같은...데
압박감이..

하아



하아

쭈뼌

하아- 역시 이게 최고라니까. 좆되네 씨팔-

쭈뼌

아..앙..♥

하악



후배님도 좋지? 신음이막 새어나오네-

쭈뼌

음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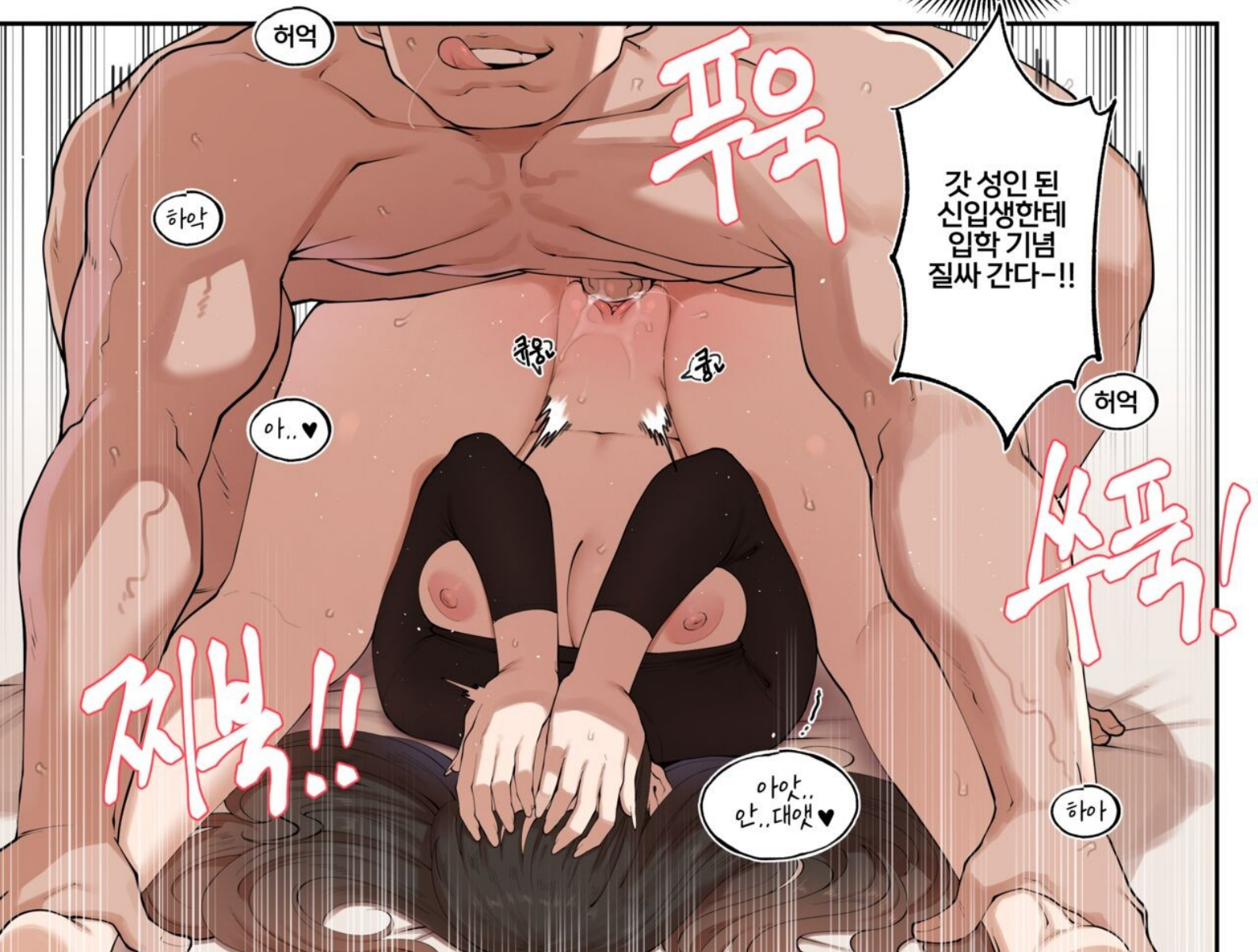
하아.. 잠깐.. 아니이거..

음찐

푹

싫어.. 뭔가... 뭔가 오고 있어..

어떡해.. 아..♥



허억

푹

갓 성인 된 신입생한테 입학 기념 질싸 간다-!!

하악

쭈뼌

쭈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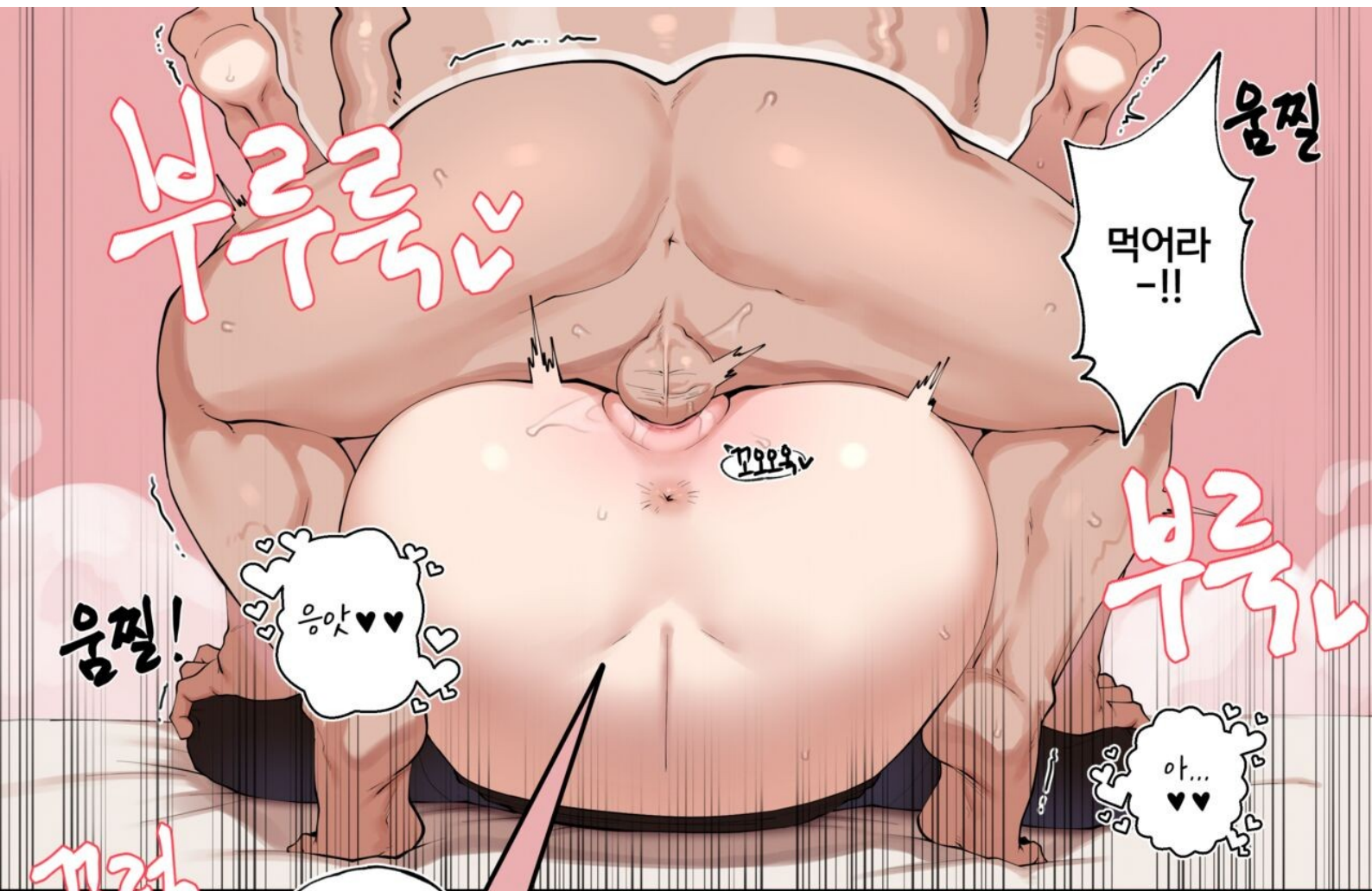
허억

쭈뼌!!

쭈뼌!!

아안.. 안..대맞♥

하아



부르르
두두룩~

음질

먹어라
-!!

음질!

응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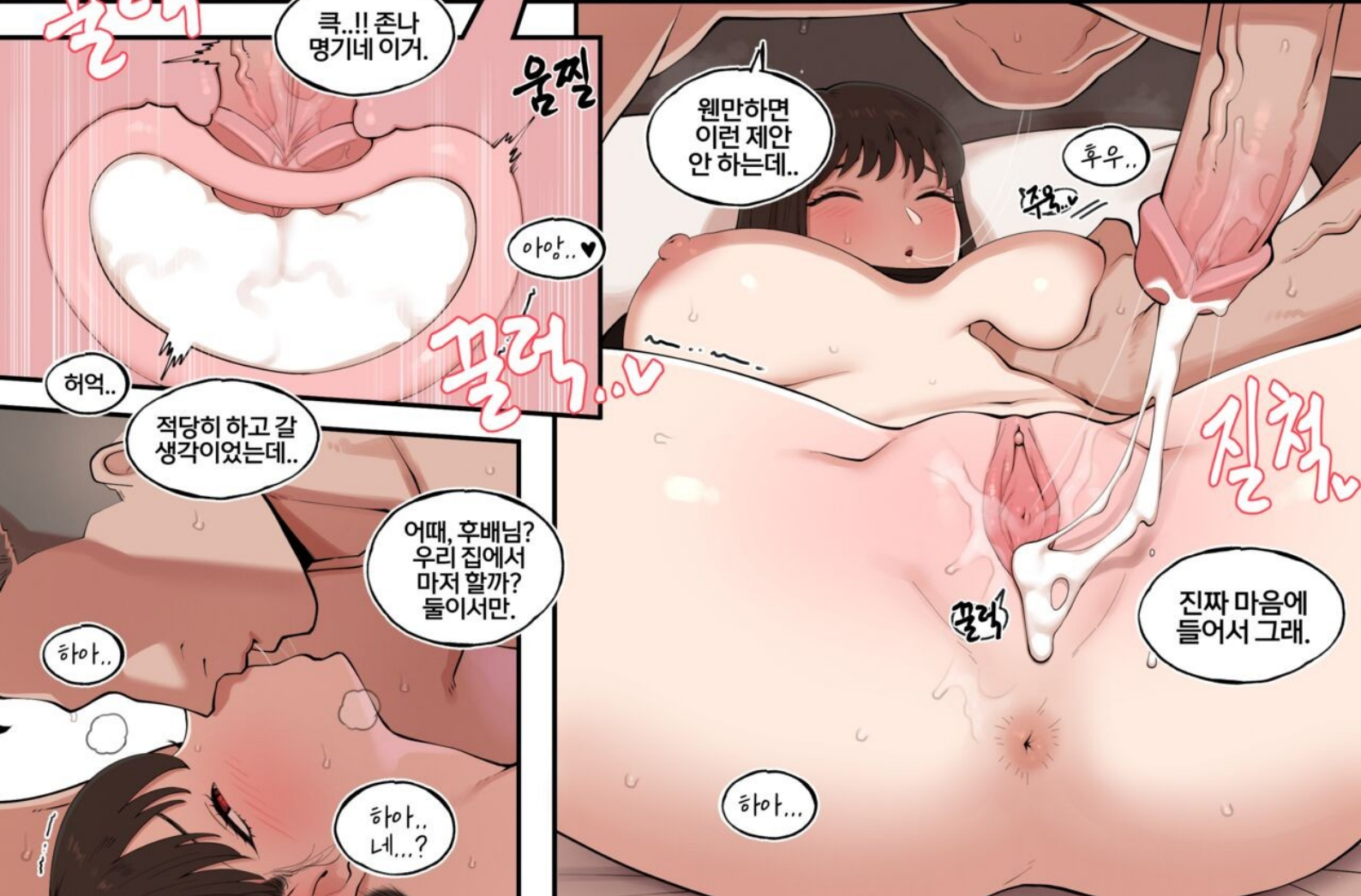
부르르
두두룩~

아...♡♡

꿀러

크..!! 존나
명기네 이거.

음질



웬만하면
이런 제안
안 하는데..

후우..

아앙..♡

꿀러..~

허억..

적당히 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어때, 후배님?
우리 집에서
마저 할까?
둘이서만.

하아..

하아..
네...?

하아...

질척~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래.

꿀러

